

보도시점 2024. 1. 31.(수) 08:00 배포 2024. 1. 31.(수) 08:00

세계 콘텐츠 4대 강국 도약의 밑거름, 케이-콘텐츠 펀드 7,000억 원 규모 조성

- 1월 31일, 모태펀드 문화계정(6,300억 원), 영화계정(650억 원) 2024년 1차 정시 출자공고
- 모태펀드 문화계정, 영화계정 정부 신규출자금 역대 최대

문화체육관광부(장관 유인촌, 이하 문체부)는 1월 31일(수), 케이-콘텐츠 펀드(모태펀드 문화계정 및 영화계정)의 2024년 1차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3,950억 원을 출자해 총 7,000억 원 규모*의 벤처투자조합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이는 전년 대비 2,450억 원 증가(54.4%)한 역대 최대 규모로, 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.

* 모태펀드 문화계정 '23년 4,100억 원 → '24년 6,300억 원(2,200억 원, 53.7% 증),
모태펀드 영화계정 '23년 400억 원 → '24년 650억 원(250억 원, 62.5% 증)

수출, 신기술 콘텐츠 펀드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문화계정 자조합 5종 조성

모태펀드 문화계정은 3,700억 원의 정부 출자(신규 출자 2,700억 원, 재출자 1,000억 원)를 바탕으로 총 6,300억 원 규모의 자조합 조성을 목표로 한다. 특히 신규출자금의 전년 대비 증가 폭은 역대 최대에 해당하는 800억 원으로,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 기업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. 또한 자조합 조성 분야를 5개 분야로 재편해*, 최근 콘텐츠 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수익률 개선을 통한 민간자본 참여 확대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.

* ('23년) 콘텐츠 지식재산권(IP) 펀드, 유니콘 펀드, 엠앤에이(M&A) 펀드, 밸류 펀드, 문화상생 펀드, 문화일반 펀드→ ('24년) 콘텐츠 지식재산권(IP) 펀드, 콘텐츠 수출 펀드, 신기술 콘텐츠 펀드, 엠앤에이(M&A) 및 세컨더리 펀드, 문화일반 펀드

먼저 콘텐츠 수출이 지난 5년('19년~'23년)간 연평균 7.1%의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며 핵심 수출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, '콘텐츠 수출 펀드(조성 목표액 1,500억 원/정부 출자액 900억 원)'를 신규로 조성한다.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 사업과 기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콘텐츠 수출 활성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.

'콘텐츠 지식재산권(IP) 펀드(조성 목표액 2,000억 원/정부 출자액 1,200억 원)'를 '23년*에 이어 2년 연속 조성해 국내 콘텐츠 제작사의 지식재산권(IP) 확보를 적극 지원한다. 최근 콘텐츠 원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하는 추세를 반영했다. 특히 조성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500억 원 확대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밑거름을 제공할 계획이다.

* '23년 콘텐츠 지식재산권(IP) 펀드: 조성 목표액 1,500억 원, 정부 출자액 900억 원

'신기술 콘텐츠 펀드(조성 목표액 1,000억 원/정부 출자액 600억 원)'를 새롭게 조성해 신기술 융합콘텐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. 인공지능, 가상·증강현실 등 신기술과 융합된 콘텐츠 시장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'신기술 콘텐츠 펀드'를 통해 콘텐츠 산업의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.

'23년에 조성한 '엠앤에이(M&A) 펀드*'는 범위와 규모를 더욱 확대한 '엠앤에이(M&A) 및 세컨더리 펀드(조성 목표액 1,000억 원/정부 출자액 600억 원)'로 개편해 콘텐츠 산업 투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. 기업 인수·합병(M&A) 투자를 통해 콘텐츠 기업의 규모 확장(스케일업)을 지원하는 한편, 세컨더리 투자**로 콘텐츠 분야 중소·벤처기업이 기발행한 구주(주식 및 주식관련사채 등)를 인수, 회수시장을 적극 지원한다.

* '23년 엠앤에이(M&A) 펀드: 조성 목표액 667억 원, 정부 출자액 400억 원

** 세컨더리 투자: 기존 펀드(사모펀드, 벤처캐피탈 등)가 보유한 중소·벤처기업 지분을 유동화하기 위해 다른 펀드에 매각하는 거래

주목적 투자의 범위를 문화산업 분야 전반으로 폭넓게 인정해 투자요건을 대폭 완화한 '문화 일반 펀드(조성 목표액 800억 원/정부 출자액 400억 원)'를 지난해*보다 더욱 확대해 조성한다. 자조합 운용사의 높은 자율성을

보장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성, 케이-콘텐츠 펀드 수익률 개선에 앞장설 전망이다.

* '23년 문화 일반 펀드: 조성 목표액 600억 원, 정부 출자액 300억 원

한국영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화계정 자조합 2종 조성

모태펀드 영화계정은 민간투자 위축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신규출자금을 대폭 확대(80억 원→250억 원)해 적극적 투자자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영화가 활발히 제작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다. 특히 코로나19 기간에 제작되었으나 개봉되지 못한 영화에 65억 원 이상을 지원해 미개봉작들이 관객을 맞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. 미개봉작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로 결성하고 있는 ‘개봉촉진펀드’를 통해서도 50억 원 이상 투자한다. 올해부터는 민간출자자에 대해 우선 손실 충당*이 가능하도록 유인책(인센티브)을 적용해 민간투자 유치를 유도할 장치도 마련한다.

* 손실 발생 시 모태펀드가 민간 출자자에 우선하여 손실을 충당하는 제도

먼저, ‘한국영화 메인투자 펀드(조성 목표액 420억 원/정부 출자액 210억 원)’를 신규 조성한다. 메인 투자한 영화의 지적재산권(IP) 활용 권한은 제작사가 보유하며, 운용사가 투자한 영화의 총제작비 조달과 제작비 집행, 제작의 완성, 개봉, 정산 등 일체의 책임을 수행하도록 해 강소 영화제작사 육성에 기여할 전망이다.

‘중저예산 한국영화 펀드(조성 목표액 230억 원/정부 출자액 115억 원)’는 순제작비가 30억 원 이하인 중저예산과 저예산 한국영화에 각각 25%와 10%씩 의무 투자 비율을 뒤 중저예산 한국영화 제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. 특히 투자대상 작품이 연출자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장편인 경우 중저예산 제작비 상한 제한을 미적용해 신인감독 발굴에 힘을 실는다.

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“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”이라며, “2024년 케이-콘텐츠 펀드 7,000억 원을 비롯, 총 1조 7,400억 원*의

콘텐츠 정책금융을 공급하여 대한민국이 세계 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* 모태펀드 문화계정·영화계정 7,000억 원, 콘텐츠 전략펀드 6,000억 원, 문화산업 완성보증 2,400억 원, 이차보전 지원 2,000억 원

케이-콘텐츠 펀드에 대한 제안서 접수는 2월 14일(수) 오전 10시부터 20일(화) 오후 2시까지 온라인(<http://install.kvic.or.kr>)으로 받는다. 4월에 최종 운용사를 선정, 발표할 예정이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(www.kvic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담당 부서	콘텐츠정책국 콘텐츠금융지원과	책임자	과장	진재영 (044-203-2581)
		담당자	사무관	채창렬 (044-203-2582)
	콘텐츠정책국 영상콘텐츠산업과	책임자	과장	강민아 (044-203-2431)
		담당자	사무관	이초롱 (044-203-2432)

국민과 함께하는
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

**GANGWON
2024**



YOUTH
OLYMPIC
GAMES

대한민국
지정브리핑

